

온라인 무안연꽃축제 '흥행 만개'



온라인으로 진행된 무안연꽃축제 개막식



무안에서 온(ON) 편지

5일간 비대면 진행...홈페이지 방문객 13만·유튜브 조회 31만회 공연·체험·농특산물 판매·가요제 등 3개 분야 20여개 프로그램 고연령층 등 주민참여형 콘텐츠 강화...온라인 축제 한계 극복해

무안군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열린 무안연꽃축제로 '대박'을 냈다.

무안군은 최근 일정을 마감한 제24회 온라인 무안연꽃축제 홈페이지 방문객 13만명, 유튜브 조회 31만회를 기록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무안연꽃축제는 코로나19 감염위험 방지를 위해 무안연꽃TV 유튜브와 축제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청자들이 3개 분야 20여 개의 프로그램을 어디서든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첫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회산백련지와 어울리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무안군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 주민들과 온라인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21일 오후 이원일 셰프가 진행한 연꽃쿠링 클래스는 참가자 모집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화상시스템 줌(ZOOM)을 활용해 참가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무안의 연근과 햇고구마를 활용해 간편하면서도 특색 있는 요리를 선보이며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신청자 접수 이틀 만에 200여 명이 넘게 신청해 조기에 접수를 종료하고, 최종 참가자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무안 연근과 고구마를 배송해 무안군 농산물을 홍보하는 계기도 만들었다.

이어 진행된 라이브커머스에서도 이원일 셰프가 판매자로 활약하며 고구마와 단호박을 이용한 요리법을 소개하고 직접 먹방을 선보이며 판매율을 높이

는데 크게 기여했다.

연꽃가요제에는 9개 읍면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출전해 전문 가수 못지않은 노래실력을 선보이며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무안군은 이번 축제에서 '무안에서 온(ON) 연꽃편지', '백련등 만들기' 등 주민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그동안 축제의 단순 관람자였던 주민들을 축제의 주인공으로 부각시키고 고연령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며 온라인 축제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축제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13만명이 방문하고 무안연꽃TV 유튜브 조회수 31만 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의 다양한 유튜브 관람객을 잠재 고객으로 확보하고 연꽃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김산 무안군수는 "비대면 축제를 통해서도 축제 인지도와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면서 "온라인 축제의 경험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느 지자 체보다 효과적인 관광마케팅 정책을 추진하고 축제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연꽃쿠링클래스



연꽃가요제

무안, 직접 보면 더 좋다

영상으로만 보기 서운한 관광 명소 3선

▷낙지공원 노을길 야영장

무안 해안관광도로 중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명소로 꼽히는 망운면 송현리 유종동에 마을 주민들이 주로 이용했던 울창한 해송 숲을 관광자원화해 낙지공원과 노을길 야영장을 개장했다.

야영장에는 캠핑데크 10개 소와 카라반 3개 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해안경관 및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낙지모양의 전망대와 무안카페 등 잠시 머물며 쉬어가기 좋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곳곳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밤에 한층 더 멋스러운 야경을 즐길 수 있다.

또 4km에 달하는 모래사장 해수욕 산책로는 연인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부족함이 없다. 어족자원이 풍부한 갯벌에서는 고동, 칠게잡기 체험을 즐길 수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여행 후 추억거리를 선사한다.



▷전통생활문화테마파크

몽탄면에 위치한 전통생활문화테마파크는 폐교인 몽탄남초등학교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시설이다.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아이들은 부모들의 어린 시절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무안의 민속유물 수집가인 윤근택 선생이 무안을 비롯한 남도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생활소품들 중 3000여 점의 유물을 인수해 설립했다. 실내전시관에는 전파사, 양복점, 사진관 등 한 동네의 시장거리를 재현해 놓았으며, 사진관에서는 비치된 교복을 입고 직접 사진촬영도 해볼 수 있다. 이어지는 학교 공간에서 교실에 들어서면 동영상으로 선생님의 수업 장면을 볼 수 있어 옛 기억이 절로 되살아난다. 야외 공간에도 옛 시절 체험공간을 만들어 짧지만 알찬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분청사기 명장 전시관

몽탄면소재지 인근에 김옥수 명장의 분청사기 명장 전시관이 있다. 포은 김옥수 명장은 4대째 가업을 이어 도자기를 만들며 대한민국 도예명장 제459호에 선정된 살아있는 문화재다.

분청사기 전시관 2층에는 두 곳의 전시실이 있다. 첫 번째는 김옥수 명장이 무안에서 발굴하거나 사비로 수집한 도자기 자료들이 전시된 무안분청유물전시실이고, 두 번째는 김옥수 명장이 만든 여러 도자기 중 일부를 볼 수 있는 분청사기명장전시실이다.

이 두 전시실을 통해 우리나라 도자기의 변천사와 무안 분청사기의 중요성을 알 수 있고, 박물관에서 보던 옛 도자기 유물들과 비교해 손색없는 현대 도자기의 아름다움도 감상할 수 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자산·공제 3,000억 달성 기념 경품 대 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정기예탁금

2.2% (2년)

2.1% (1년)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정기적금

1년 3.0%

자산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신축사옥 임대문의 환영

※임대업종: 한방병원, 병의원, 커피숍, 초밥전문점 등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총장로5가 입구)